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조업을 앞둔 조선인민군 1월 8일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야영소의 여러곳을 장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에 새로 정중히 모신 아이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보신 다음 국제친선소년회관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회관의 극장, 등산지식보급실, 전자오락실, 도서실, 국제친선실, 소년단실, 미술실, 솜씨전람실, 립체를동영화관 등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정말 마음에 든다고, 우리의 건축술이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구내에 써붙인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구호를 보시고 정말 좋다고, 저 구호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고 사랑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을 그대로 리친 노래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야외운동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야외물놀이장, 야외활쏘기장을 정말 잘 건설했다고, 운동장의 인공잔디, 관람석의자, 물결모양의 푸른 চে양이 조화를 잘 이룬다고, 모든 건축물들이 말그대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예술작품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1각, 야영2각의 침실과 식당, 주방은 물론 편의시설들까지도 아이들의 동심에 맞다고, 당의 의도에 맞게 아이들이 제손으로 밥도 짓고 여러가지 음식도 만들어 먹을수 있게 료리실습실을 잘 꾸려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의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들이 규모에 있어서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을뿐만아니라 요소소소가 우리의 얼굴이 살아나고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보장되었으며 당의 후대관이 비친 멋쟁이건축물,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우리가 1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야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당이 바라는 기준에서 개건된것만큼 마무리를 잘하고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여 이곳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업을 앞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조업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물랭동과 절임에 필요한 시설들도 손색없이 건설

했으며 당에서 마련해준 물고기선별 및 세척콘베아, 평관식극동기, 랭동차, 유조차, 지게차 등을 그쁘히 갖추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합숙과 휴게실을 어로공들의 정든 보금자리답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꾸린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특히 어로공들이 살게 될 다층주택지구를 은하과학자거리처럼 멋있게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어로공주택지구를 어촌단풍마울이라고 다정히 불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수산사업소는 불수록 회한한 로동당시대의 결작, 조선동해포구에 솟아난 선군시대의 새로운 풍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선창마다에 물고기가 차넘치고 물고기사태가 쏟아지면 이곳을 선군14경으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수산사업소건설을 받기만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사과제를 성

파적으로 수행하고 조업을 눈앞에 둔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조선속도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명령을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우리 당에서 인민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이번에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전국의 본보기, 표본이 될수 있게 건설한것만큼 군대와 사회의 수산부문에서는 새로운 수산기지를 일떠세우거나 이미 있던 수산기지를 개건할 때 이 사업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바다 향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의 기대에 높은 생산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의 비행훈련과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관하 녀성방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4월 21일 오종흠7련대장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를 찾으시고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비행훈련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정상적인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어온 군부대 비행사들은 즉시에 출격태세를 갖추었다.

먼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사랑속에서 비행중대장으로 자라난 김영조영웅비행사의 아들인 김훈이 백두의 폭풍과 같이, 백두의 번개와 같이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의 비행모습을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며 김영조영웅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누비던 하늘길을 아들이 날고있소, 대를 이어 날으는 조국수호의 항로요, 잘하오, 정말 잘하오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곳으

로 비행기를 능숙히 조종하여온 김훈은 원수님께 훈련명령을 집행하였다는 총정의 보고를 드리였다.

그를 한품에 안으시고 한동안 그의 손을 잡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하다고, 정말 장하다고, 비행사대회에서 한 토론을 주의깊게 들었는데 다진 맹세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영조영웅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진짜배기전투비행사라고, 아버지처럼 조국수호의 항로를 부대의 맨 앞장에서 날아야 한다고 당부하시며 그를 꼭 껴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어 군부대의 비행사들이 쌍기편대를 짓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초저공에서의 횡전을 비롯한 어려운 훈련임무를 수행하는 비행대들은 임의의 순간에 명령이 내려도 즉시 출격하여 백두의 칼바람소리와 같은 멸적의 폭음을 울리며 원썬들의 아성을 송두리채 뒤흔들어놓고야말 용감한 매들의 전투적기상을 남김없이 파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사들이 자

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비행사들을 몸소 만나주시고 고무격려해주시였으며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항공군의 싸움은 분초를 다투다고 하시면서 비행훈련을 강화하여 비행사들을 현대전에 능숙히 대처할수 있는 하늘의 결사대,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더욱 역세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관하 녀성방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관하 녀성방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포사격계획과 포병구분대들의 배치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늘 말하는것이지만 훈련에서 형식주의를 뿌리뽑고 도식적인 방식과 멋따기를 하는 현상을 철

저히 없애야 한다고, 특히 방사포병들은 전투임무에 맞게 기동으로부터 전개, 목표조준과 사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훈련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는것을 체질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격장에 이미 전개한 방사포병중대들을 보시고 현재 차지한 진지에서 불의에 기동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녀성방사포병들은 평시훈련에서 다져온 전투력을 높이 발휘하여 육중한 포를 끌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해주신 화력진지에 신속히 기동전개하고 사격준비를 끝냈다.

명령에 따라 방사포병구분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해주신 사격순차와 방법대로 사격을 개시하였다.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과 함께 시뵈건 불줄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 목표구역을 편속 타격하였다.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해치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타격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며 원수격멸의 포란들이 목표구역을 초토화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바다에 잠기는 목표를 바라보시면서 포사격을 잘한다고, 멋있게 들어맞는다고, 녀성방사포병들이 정말 용라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의 녀성방사포병들이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깊이 새기고 훈련을 강도높게 진행한 결과 오늘과 같은 정황속에서도 명중탄을 날릴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포사격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녀성방사포병들이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수호해갈 일념을 안고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 더 큰 박차를 가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포병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강력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